

## 미국 대학 학부 과정의 Pre 코스란

미국 대학의 Pre 코스(Pre-requisite courses)는 특정 전공이나 프로그램에 진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Pre 코스는 전공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쌓고,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Pre 코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전공 Pre 코스이다. 이는 특정 전공에 진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의학, 법학, 공학과 같은 전문 분야의 전공은 해당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다양한 Pre 코스를 요구한다.

두 번째는 일반 Pre 코스이다. 이는 특정 전공에 진학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대학에서의 학업과 성공적인 진학을 위해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예를 들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 등은 대부분의 전공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과목입니다.

미국 대학의 Pre 코스는 대학마다, 그리고 전공마다 요구되는 과목과 학점이 다르다. 따라서, 해당 대학과 전공의 입학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미국 대학의 Pre 코스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Pre 코스는 일반적으로 대학 1학년 부터 2학년 사이에 이수해야 한다.
  - ▶ Pre 코스를 이수할 때는 해당 전공의 교수진이나 학과 사무실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 Pre 코스를 이수하면서 학업 성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학의 Pre 코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대학의 입학처 웹사이트나 입학 사정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 대표적인 Pre 코스에는 다음과 같은 것

들이 있다.

• **Pre-med(의학 예비 과정):** 의학 대학원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학생은 생물학, 화학, 물리학, 수학 등 필수 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은 관련된 전공예: 생물학, 화학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사회학이나 문학 등 다른 전공을 선택하면서도 Pre-med 과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 **Pre-law(법학 예비 과정):** 법학 대학원에 진학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특정한 과목들을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적 사고, 글쓰기, 연구 기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목들을 권장한다. 많은 Pre-law 학생들이 정치학, 철학, 영문학 등의 전공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전문 분야 과정을 준비시켜주는 Pre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Pre-Dentistry, Pre-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Pre-Nursing, Pre-Nutrition, Pre-Occupational Therapy-(LAS), Pre-Pharmacy, Pre-Physical Therapy(LAS), Pre-Public Health(LAS), Pre-Veterinary Medicine

대학의 Pre 과정은 학생이 원하는 진로나 전문 분야에 필요한 학부 수업을 안내하고, 그 후의 진로나 전문 대학원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Pre 과정은 자체가 독립된 전공이 아니라, 특정 진로를 향해 준비하는 과정이다.

## 무상급식 지원 학교 확대

미국 농무부(USDA)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USDA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저소득층 다수 거주지역의 학교·교육청을 위한 전교생 무상급식 지원 프로그램 ‘CEP’ (Community Eligibility Provision) 대상을 ‘빈곤층 25% 이상인 학교와 학군’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CEP은 빈곤 가정의 자녀가 다수 재학 중인 학교의 경우 학생이 개별적으로 가계 소득에 따라 급식비 면제 또는 감액 신청을 하지 않고 학교 측이 전교생에게 아침·점심 무상급식을 제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는 빈곤층 자녀가 전체 학생의 40% 이상인 학교와 교육청이 CEP 대상이었으나 이제부터는 빈곤층이 최소 25%만 넘으면 연방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USDA는 3천여 교육구, 5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수혜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와 교육청은 흔히 ‘푸드 스탬프’로 불리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대상자 수 등 기존의 데이터를 공식에 넣어 산출한 연방 지원금을 받게 된다.”며 “모자란 금액은 각 지자체와 주 정부가 충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톰 빌색 농무부 장관은 “영양가 있는 아침·점심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기아 상태에 놓인 어린이를 줄이고 학생 건강 및 학습 준비도를 개선함으로써 전 국민의 영양 상태 및 웰빙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USDA는 “기준 확대는 전국 모든 학교·교육청에 적용되지만 현재 자체 예산으로 전교생 무료급식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 또는 교육구에 우선적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콜로라도·메인·매사추세츠·미시간·미네소타·뉴멕시코·버몬트 등 8개 주는 입법을 통해 모든 학교가 가계 소득과 상관없이 전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USDA는 무상급식 확대 외에도 이번 학기부터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학생 1인당 급식 지원금을 점심 50센트 아침 18센트씩 높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소규모 교육청 264곳에 급식 보조금 3천만 달러, 무상급식제 운영 교육청에 대한 급식 설비 지원금 3천만 달러, 학교에 급식 재료를 공급하는 지역 농장 지원금 1천100만 달러 등 학교 급식 개선을 위한 지출 확대 계획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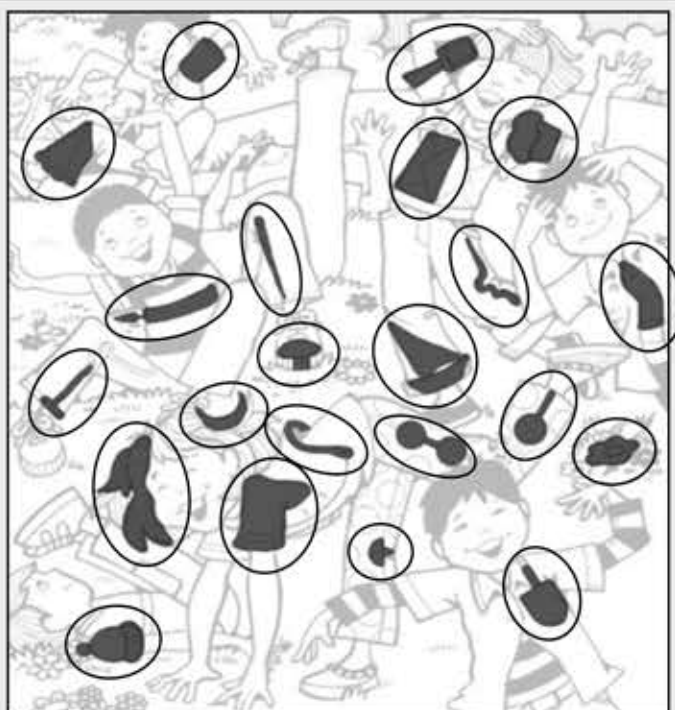
AP통신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정부는 일시적으로 전국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했으나 지난해 종료됐다.”며 “정부가 빈곤 가정에 직접 지급하는 식비 지원금마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 가치가 하락해 일부 어린이들이 배고픈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방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각 학생의 개별적 가계 소득을 기반으로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며 CEP 정책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USDA는 지난 2011년 일리노이·켄터키·테네시 3개 주에서 CEP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숫자퍼즐 정답

3	6	4	2	7	9	5	8	1
1	5	7	3	6	8	2	4	9
8	9	2	4	1	5	3	6	7
2	1	6	7	5	4	9	3	8
4	8	3	9	2	6	1	7	5
5	7	9	8	3	1	4	2	6
7	4	5	1	8	2	6	9	3
6	2	8	5	9	3	7	1	4
9	3	1	6	4	7	8	5	2